

'3선 의원' - '3선 군수' 접전... 국힘·신당 가세

광주·전남 관심 선거구를 가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지역발전 큰 정치인" 김유성 "충분한 재정 확보" 김선우 "지역 영농문제 해결" 박진오 "반도체 소부장 유치" 이석형 "연동형 직불제 부활"

4·10 총선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전남지역 최다선 현역 의원과 무소속 후보가 맞붙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관심 선거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년 연속 단수공천으로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이개호 후보가 나서며 국민의힘에서는 전 대한탐정연합회장인 김유성 후보가 전략공천을 통해 협지에서 도전장을 내던졌다. 또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후보를 낸 새로운미래의 김선우 후보가 출마했으며 개혁신당에서는 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박진오 후보가 출마

해 표밭을 다지고 있다. 무소속으로는 함평군수 출신 이석형 후보가 출마해 현역 의원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개호 후보와 같은 당 출신이지만,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석형 후보의 2파전이 펼쳐지는 형국으로, '정권 심판'과 '현역 교체론'이 정면충돌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는 민주당 이개호, 국민의힘 김유성, 새로운미래 김선우, 개혁신당 박진오, 무소속 이석형 등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2명의 신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까지 출마했다.

이개호 후보는 재보궐선거당선을 시작으로 내리 3선을 지낸 지역의 터줏대감이다. 4선에 도전하며 지역 성장동력 발굴, SOC 구축 등을 다선 의원의 영향력으로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는 "지역발전의 비전을 그려나가고 실현해 낼 힘 있는 국회의원, 중앙과 지역, 행정과 정치를 아우르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무능과 무책임, 민생 파탄의 정부를 심판하고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 출마한 이개호(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유성 국민의힘, 김선우 새로운미래, 박진오 개혁신당, 이석형 무소속 후보.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선거에 뛰어들 김유성 후보는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집권여당 후보로서 충분한 재정 확보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함평군수에 출마하며 두 자릿수를 득표하는 등 지역 내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우리 지역은 깃발만 쫓으면 당선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특정당이 장기집권하며 낙후돼 왔다"며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중앙에 전달해 경제적인 창출을 이뤄내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

한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복지TV사장을 역임한 김선우 후보는 전남의 유일한 새로운미래 후보다. '노인정' 설립 공약 등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저희 4개 군은 농어촌지역인 만큼 특히 영농문제가 심각하다"며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4개 군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연구교수로 재직하다가 정치권에 나선 개혁신당 박진오 후보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첨단산업 투자유치 능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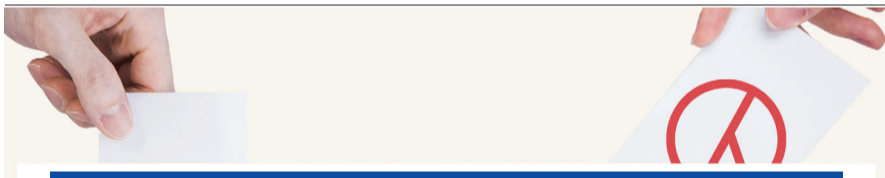
소통, 협력 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우리 지역은 현재 첨단반도체 관련 소부장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의 한 중심에 있다"면서 "문제는 지역에 기업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가가 없다. 제가 앞장서 지역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석형 후보는 일명 '나비군수'로도 불리며 함평에서 내리 3선 군수를 지낸 인물로, 강력한 민주당의 영향력 속에서도 상당한 지지율로 관심을 얻고 있다. 장기집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피로감 해소와 맞춤형 산단 발전, 연동형 직불제 부활 등 공약을 앞세워 민심을 모으고 있다.

이 후보는 "내리 3선 단수 공천에 대해 저는 물론, 군민분들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라도 지역의 정책을 바로 세우고 소멸 위기의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전남일보·전남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 선거정보 바로알기 Q&A

<4·끝> 개표

Q.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인가요?

A. 아닙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적 보조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 운영장치는 통신장치(무선랜카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며, 외부통신기능이 없어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모양과 위치를 인식해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수작업 개표의 정확성·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장치에 불과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의해 위와 같이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사 무원이 재차 수작업으로 확인·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위원 검열·위원장 공표 후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개함→투표지분류기 분류→수작업 심사·확인→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로 이뤄지는 개표의 전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뤄지며,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위한 보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Q. 개표보고시스템이나 개표통신망을 이용해 개표결과를 전산조작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개표 전 과정은

정당·후보자별 개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이뤄집니다. 개표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공표해 확정됩니다.

개표소에서 개표결과가 기재된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고, 이와 함께 개표 보고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 때문에 개표소 내 결과와 개표보고시스템의 결과를 실시간 비교·대조할 수 있습니다. 개표보고시스템은 전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공표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단순히 취합하고, 또 취합된 개표진행상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결과가 실제 개표결과이므로, 설사 개표보고시스템 입력수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외부 해킹에 의한 조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또 개표보고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일반인터넷망과 분리된 선거전용 폐쇄망으로, 비인가 단말기가 접속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후보자가 지정한 다수의 개표참관인의 경우 개표소에 게시된 개표상황표 사본과 위원회 홈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비교·대조할 수 있으며, 개표참관인이 요청시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합니다.

자연 **愛** 물들고! 영광 **愛** 반기고!

2024 영광 방문의 해

- 제63회 The 63rd Jeollanamdo Sports Festival**
전라남도체육대회
2024. 4. 17.(수)~4. 20.(토) 4일간 / 영광스포티움 종합경기장
- 제32회 The 32nd JeollaNamdo Spo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4. 29.(토)~5. 1.(화) 3일간 / 영광스포티움 종합경기장
- 영광농기계 2024영광법성포단오제**
2024. 6. 7.(토)~6. 10.(화) 4일간 / 법성포단오제전수목욕관 일원
- 제1차 영광생태리 축제**
2024. 9. 13.(토)~9. 22.(토) 10일간 / 불갑사관광지 일원
- 제10회 영광찰보리 어울마당**
2024. 5. 10.(토)~5. 11.(토) 2일간 / 군남면 지내물 물타공원 일원
-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YEONGGWANG e-MOBILITY EXPO
2024. 10. 17.(토)~10. 20.(화) 4일간 /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일원

역사가 살아숨쉬고 문화가 꽃피는 이곳!
영광으로 오세요!